

2015년 스마트폰의 80%, 3D 카메라와 입체 스크린 탑재 전망

2011. 12. 12

Overview

시장조사업체 존 페디 리서치(Jon Peddie Research)와 하드웨어 전문 웹사이트 엑스비트랩(XbitLabs)에 따르면, 저전력 고성능 프로세서의 등장으로 인해 오는 2015년까지 스마트폰의 80%가 입체 스크린과 3D 카메라를 장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Briefing

저전력 고성능 프로세서 등장으로 2015년 스마트폰의 대다수 S3D 지원

- 시장조사업체 존 페디 리서치(Jon Peddie Research, JPR)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스마트폰의 80%가 3D 스크린뿐만 아니라 3D 카메라를 장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하드웨어 전문 웹사이트 엑스비트랩(XbitLabs)은 3D 카메라와 스크린을 장착한 스마트폰이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게임의 성능 또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뿐만 아니라 2개의 카메라가 시차를 두고 영상을 촬영하는 3D 카메라를 통해 동작 기반 제어 및 보다 진화된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이용, 깊이감 조절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 엑스비트랩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스테레오 3D(S3D) 카메라 및 3D 스크린을 탑재하지 못한 이유로 모바일 프로세서의 한계 및 비용 문제를 지적함
 - 그러나 최근 나노미터(nanometer) 기술의 발전으로 전력 소모가 크게 줄면서 성능이 크게 강화된 프로세서가 등장했고, 향후 더욱 많은 단말에서 S3D 기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관련 업계는 향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에서도 S3D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이 다수를 이룰 것으로 전망함
 - 스마트폰의 경우 다수의 사용자가 개인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이용하는 반면 태블릿은 상대적으로 화면 크기가 크고 엔터테인먼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스마트폰보다 S3D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더불어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닌텐도 3DS(Nintendo 3DS)' 등 안경 착용 없이도 3D 기능 구현이 가능한 단말의 보급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도시바, LG 등은 무안경 3D 방식(Autostereo)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좁은 시야각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임¹⁾
- 스페이셜뷰(SpatialView)社は 최근 안경 없이 iPhone 4에서 3D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저가의 디바이스를 공개함

Analysis

기존에 제작된 입체 콘텐츠를 이용해야만 하는 3D TV와 달리 3D 스마트폰은 입체 카메라를 통해 이용자들이 3D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LG 전자의 경우 자사 3D 스마트폰 '옵티머스 3D(Optimus 3D)' 출시와 함께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와 제휴를 체결, 할리우드 스튜디오 등에 국한되어있던 3D 관련 기술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듯 모바일 3D 카메라 기술은 부족한 콘텐츠와 높은 하드웨어 가격으로 고전하고 있는 3D 시장 대중화를 위한 성장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결국 3D 시장 성패의 관건은 '소비자 수용도'라는 점에서 단말 벤더들은 3D 기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모바일 프로세서와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Source

1. BusinessWire, '80 Percent of Smartphones Will Have Stereo 3D Cameras and Screens by 2015 Says Jon Peddie Research', 2011. 12. 1
<http://www.businesswire.com/news/home/20111201005505/en/80-Percent-Smartphones-Stereo-3D-Cameras-Screens>
2. 3D Gallery, 'Analyst Predicts 80% of Smartphones to Have Stereo 3D Displays and Cameras by 2015', 2011. 12. 4
<http://3d-gallery.info/2011/12/analyst-predicts-80-of-smartphones-to-have-stereo-3d-displays-and-cameras-by-2015>

1) 지난 7월 출시된 엘지전자의 무안경 3D 모니터는 사용자 눈의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3D 영상을 보여주는 '헤드 트래킹' 기술을 적용해 무안경 3D 방식의 단점인 좁은 시야각 문제를 개선함